

# “평양서 광주·전남 역도의 저력 보여줄 것”

## 광주·전남 5명 역사, 아시아역도선수권 출전 광주시청 문정선·완도군청 신비 주니어 대표 신록·이승헌·조민재 등 3명은 유소년 대표

문정선(20·광주시청)과 신록(고흥고 2년) 등 광주·전남지역 ‘역사’ 5명이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역도 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1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가 20일 평양 청춘가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전에 돌입했다.

아시아 총 15개국에서 온 17세 이하(유소년) 97명, 20세 이하(주니어) 120명의 젊은 역도들이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체급별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는 순위에 따라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 점수가 부여되는 대회로 선수들의 열전이 예상된다.

광주 선수로는 문정선이 아시아여자 주니어 49kg급 대표로 나선다. 문정선은 전국체전 데뷔 첫해였던 지난 2015년 광주체고 1학년 시절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하며 여고부 48kg급을 평정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제29회 전국체전 여자 역도경기대회 48kg급 3관왕, 제9회 전국여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다.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9kg급에 출전해 용상(95kg)과 합계(169kg)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로는 신비(19·완도군청)가



이승헌 신비 신록 조민재

아시아남자주니어 73kg급에 출전한다. 신록(61kg급)과 이승헌(전남체고 2년·+102kg급), 조민재(전남체중 3년·61kg급) 등은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신비는 고흥고 3학년 때인 지난해 전국체전 69kg급 3관왕으로 역도 고등부를 평정하고 올해 완도군청에 입단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일반부 73kg급 용상에서 178kg을 들어 한국주니어 타이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신비 동생인 신록은 고흥고 진학 후 첫 해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인상 108kg, 용상 144kg(대회신기록), 합계

하역도 중등부를 평정했다. 고 1때인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109kg으로 올려 출전해 입상에 실패했으나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은 2·동 1개를 획득했다.

조민재는 전국소년체전 3년 연속 3관왕에 오른 역도 유망주다. 1학년 때인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45kg급에 출전해 첫 3관왕에 오른 뒤 지난해에 47회 소년체전에선 50kg급으로 체급을 올려 3관왕에 성공했다. 올해 48회 소년체전에서도 체급을 또 올린 56kg으로 출전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광주·전남 선수들은 21일부터 열린 경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역도의 저력을 보여 줄 것”이라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신록은 “지난해 아시아유소년선수권 대회에서 4위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엔 반드시 금메달을 노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동환 기자 cstone@jilbo.com

### 브리핑



##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남자 핸드볼, 첫 승 신고 쿠웨이트 제압... 4강 불씨 살려

한국 남자 핸드볼이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2차전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첫 승을 신고했다. (사진)

강일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두하일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진 쿠웨이트와의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36-32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이란에 1점차로 석패했던 한국은 1승1패를 만듦에 4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조 2위까지 4강에 간다.

첫 경기에서 나란히 이긴 이란과 바레인의 경기결과에 따라 2위 혹은 3위에 자리하게 된다.

정수영(하남시청)과 박지섭(상무)이 나란히 7점씩 올리면서 공격을 이끌었다.

한국의 최종 상대는 바레인이다. 22일 만난다. 승패가 같을 경우에는 두 팀 간 전적, 전체 골득실, 전체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 1위에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진다.

뉴시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평양축구 사태 사과, 남북 교류는 계속해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중계방송 무산과 취재진 및 응원단의 방북없이 치러진 평양에서의 남북 축구 맞대결에 대해 사과했다.

이 회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지난 평양 축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북은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 북

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렀다.

지난 7월 조 추첨에서 평양 맞대결이 성사됐을 때부터 우려를 자아냈던 이 경기는 각종 변수들이 쏟아진 전례 없는 한 판으로 남게 됐다.

월드컵 예선 최초 평양에서의 남북 대결은 전파를 타지 못했고, 국내 취재

진과 응원단의 방북은 불허됐다. 선수들은 북한의 철통 감시 속에 호텔과 경기장만 오가다 북한을 빠져나왔다.

이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에 강력히 부적절성에 대해 항의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세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이게 이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 김정수 북한 체육성 제1부상을 만나 유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유감은 전했다. 노력을 함께 해보자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또 “남북 교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처사를 비판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수들이 호텔에 사실상 감금됐다”면서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 실상을 보고해야 한다. 유감 표명만으로는 안 된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 지드래곤 26일 전역... 빅뱅·YG 구원투수 될까?

지상파 TV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EBS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5:00 무한리얼 셀러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활의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7: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7:50 일일드라마 모두 다 콩파리	5:00 화합기행 스페셜 5:55 덕터 365 6:00 모닝와이드 7:35 kbc 모닝 730	5:00 양보초 영아 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6:00 한국기행 6:20 세계대미기행 7:00 로보가 놀리 7:30 뽀뽀뽀 뽀로로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일일드라마 ‘여름이 부탁해’ 9:40 무한리얼 셀러드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8:30 덕터 365 8:35 아침드라마 ‘우산한장모’ 9:10 좋은 아침 9:30 월드볼츠	8:00 당동영 유치원 8:30 락피부 락피부 8:45 최고의 호기심박자 시즌4 9:15 마자와 공 9:30 락피부	
10: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일일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	11:00 기본 좋은 날	10:0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9:40 아기 동물 귀여워 10:00 자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 대미기행	
12:00 KBS 뉴스 12 1: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나무 1:50 KBS 재난방송센터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살맛나는 남자들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00 12 MBC 뉴스 12:20 디큐 나눈다 1: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1:50 2시 뉴스 외전	12:00 SBS 12뉴스 12:25 만병 네트워크 뉴스 12:50 지식 토크쇼 12:55 내로세요 1:55 덕터 365	12:00 EBS 정오뉴스 12:10 건축탐구 - 집 1:00 EBS 디큐프리미엄 1:55 글로벌 교육 클러스	
2:00 KBS 뉴스 2:10 야생영정 2:40 제29회 KBS 국악대중 대상선정연주회	3:00 KBS 뉴스타임 3: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30 TV 유지원	3:20 뽀뽀뽀 모두아 놀자	2:00 뉴스브리핑	2:45 물방 2:55 꼬마비스타 3:10 로보가 놀리 3:25 테레노스 스타틴의 모험 3:55 출몰! 슈퍼맨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왕국	4:00 무한리얼 셀러드 5:00 디큐 공전	4:20 일일드라마 ‘모두 다 콩파리’ 5:00 5 MBC 뉴스 5:25 경성만타지 스페셜	4:00 고향문록 스페셜 5:00 SBS 뉴뉴스 5:45 KBC 저녁뉴스	4:10 최고의 호기심박자 시즌4 4:25 마자와 공 4:40 당동영 유치원 5:00 EBS 뉴스 5:20 그림을 그려요 5:45 락피부 락피부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7:40 이웃집 할스	6:00 2019 프랑어구 한국리츠 1차전, 카를·두산	6:25 오매! 전라도 7:30 MBC 뉴스테크	6:00 영재발굴단 7:00 덕터 365 7:05 생방송 TV블로그 공저각	6:00 생활속 특! 특! 보니 하니 7:00 스포터이벤트 7:30 생활속 판다다	
8:30 일일드라마 ‘여름이 부탁해’ 9:00 KBS 뉴스 9 10:00 역사저널 그날 10:55 더리브 11:35 UHD 송타 11:40 특집 디큐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연다	10:00 일일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 11:10 KBS특별기획 드라마 ‘생일편지’	8:55 20주년 특집 100분 토론	8:00 SBS 8 뉴스 8:35 KBC 8뉴스 8:55 본격연예 한밤	8:00 마텔도사 8:30 아기 동물 귀여워 8:50 세계대미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디큐프리미엄 10:45 건축탐구 - 집 11:35 미래교육 클러스	
12:30 KBS 뉴스 12:40 KBS결정 다큐멘터리 1:40 생활의 발견 2:30 KBS 네트워크 콘서트 문화창고 3:20 KBS 네트워크 호모 사이언스 3:40 동물의 건축술 클러스 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20 스포츠 하이리이트 12: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 ‘그렇게 살다’ 1:55 KBS 재난방송센터 2:05 더리브	12:30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12:30 나이트라인 1:00 전국 TOP 10 기요소	12:25 자식의 기쁨 12:55 지식채널e 1:05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	

그들 ‘빅뱅’ 리더 지드래곤(31·사진)의 전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요계에 파급력이 큰 그의 컴백으로 인해 솔로·팀 활동뿐 아니라 YG엔터테인먼트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26일 만기 전역한다. 지난해 2월27일 현역 입대했다. 당초 21개월 복무가 단축됨에 따라 한달가량 일찍 전역하게 됐다.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서 복무해왔다.

군 복무가 순탄하지는 않았다. 작년 민간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국군병원 1인실에서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잦은 휴가 사용을 일부에서 문제 삼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앞당겨져 전역을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드래곤이 전역 후 바로 활동에 돌입할지 관심사다. 그는 최근 누나인 패션 사업가 권다미씨와 배우 김민준의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K팝 신에서 가장 강력한 솔로 스타파워를 가지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그의 솔로 활동 재개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빅뱅도 이르면 올해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다. 빅뱅의 다른 멤버 태양과 대성이 내달 전역하기 때문이다. 빅뱅의 다른 멤버 탑은 지난 7월 소집해졌

다.

YG는 현재 지드래곤과 빅뱅의 컴백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종 의혹과 구설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승리가 갖은 구설로 빅뱅에서 탈퇴하면서 브랜드는 하락한 상황이다. YG의 정신적 지주였던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도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직책을 내려놓아 회사 역시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지드래곤과 빅뱅이 구원투수인 셈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블랙핑크가 건재하고 최근 악동뮤지션이 음원차트를 휩쓸면서 YG의 분위기가 반전을 위한 발판을 깔아놓았다”면서 “여기에 지드래곤, 빅뱅의 컴백은 YG의 회복세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 슈퍼엠, 美 빌보드 8개 차트 1위

SM엔터테인먼트 연합그룹 ‘슈퍼엠’이 최근 미국 빌보드의 8개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21일 SM에 따르면 슈퍼엠은 데뷔 앨범 ‘슈퍼엠’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을 비롯 ‘아티스트 100’, ‘톱 앨범 세일즈’, ‘디지털 앨

범’, ‘월드 앨범’, ‘톱 커런트 앨범’, ‘인터넷 앨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까지 총 8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14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슈퍼엠이 ‘빌보드200’에 오른 사실을 알렸다.

한국 가수 중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빌보드 200’ 차트가 처음 발표

된 이후 아시아 가수가 데뷔 앨범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슈퍼엠이 최하다.

‘아티스트 100’에서 1위에 오른 것도 성과다.

음반 판매량,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팬과의 소통 등을 지표로 매주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순위를 매기는 이 차트는 빌보드 내 주요 차트 중 하나다.

한편, 지난 4일 월드와이드 공개된 ‘슈퍼엠’에는 타이틀 곡 ‘차랑’을 비롯 해 5곡이 실렸다.

뉴시스

##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 월 비 백... 한국을 때마다 기뻐”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4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기자회견이 열렸다.

간담회에는 맥켄지 데이비스, 아놀드 슈왈제네거, 린다 해밀턴, 나탈리아 레이즈 가브리엘 루나, 팀 밀러 감독이 참석했다.

슈왈제네거는 “아 월 비 백(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터미네이터는 약속을 잘 지킨다.

다른 배우분들과 훌륭한 감독들과 함께 왔다.

이 영화를 홍보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 영화가 좋으면 홍보할 때 굉장히 즐겁다. 상영회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관객이다.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하자 30년이 넘었다. 영화나 책 홍보뿐만 아니라 휴가로도 왔다. 한국에 오면 항상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심판의 날 이후 뒤바뀐 미래를 그린다.

새로운 인류의 희망 ‘대니’(나탈리아 레이즈)를 지키기 위해 슈퍼 솔저 ‘그레이스’(맥켄지 데이비스)가 미래에서 찾아오고, ‘대니’를 제거하기 위한 터미네이터 ‘Rev-9’(가브리엘 루나)의 추적이 시작된다. 30일 국내 개봉한다.

뉴시스

